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일기』 (*Memoriale*)에 나타난 영적 식별에 대한 이해: 성 이냐시오 로올라의 『영신수련』 식별 규칙을 중심으로

김영훈 S.J.

서강대학교, 영성신학

들어가는 말

1.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일기』

1.1 생애

1.2 『영적 일기』의 구조와 목적

1.3 『영적 일기』에 나타난 영적 식별의 중요성

2. 성 베드로 파브르의 내적 체험으로부터

2.1 내면의 불안과 자비의 체험

2.2 신심

2.3 갈망

3.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신수련』 식별에 대한 이해

3.1 첫째 주간에 적합한 영들의 식별 규칙들

3.2 영적 위로

3.3 영적 실망

3.4 둘째 주간에 적합한 영들의 식별 규칙들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교황 프란치스코는 베드로 파브르 성인 시성 감사 미사를 집전하며 갈망과 식별 그리고 사도적 열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늘 이것을 명심합니다. 교회의 힘은 그 자체나 조직력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심연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심연의 물이 우리의 갈망을 소용돌이치게 하며, 갈망이 마음을 확장합니다. [...] 파브르 성인은 자신의 갈망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식별’(discernere)할 수 있었습니다. 갈망이 없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회헌은 ‘우리 주 하느님께 봉헌하는 갈망으로 이웃들을 도우라고’ 합니다.1)

기도와 영적 식별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자신의 직무를 더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어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삶의 모델인 성 파브르는 식별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내적 움직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세상 한 가운데의 깊은 긴장과 분열 상태에서도 주님을 찾고자 했다. 성 파브르의 개인적 특징들을 교황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모든 사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및 적대자들과도 했던 대화, 어쩌면 순진함이라고도 할 만한 단순한 ‘신심’, 즉각적으로 자신을 내줄 준비가 된 자세, 주의 깊은 내적 ‘식별’, 위대하고 강력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무척 부드럽고 온화하고 [...]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2) 이처럼 신심, 갈망, 그리고 식별은 성 파브르를 드러내는 주요한 특징이다.

이 논문은 성 파브르의 영적 식별을 연구하기 위해 그의 신심과 갈망이라는 내적 체험의 구조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는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성 파브르의 식별에 대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 파브르는 어떻게 식별의 은사를 구하였으며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하였는가? 그의 내적 체험은 식별의 양성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

1) “Santa Messa nella ricorrenza del Santissimo Nome di Gesù.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0103_omelia-santissimo-nome-gesu.html (접속일: 2019. 8. 4); 메리 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김치현·김학준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7-8. 인용한 책의 번역을 필자가 부분적으로 다듬었음. 이하 본고에서는 ‘I Desideri’를 ‘열망’(熱望)에서 ‘갈망’(渴望)으로 수정하여 인용하고 표기함.

2) Antonio Spadaro, “Intervista del Direttore a Papa Francesco”, *La Civiltà Cattolica*, 3918(2013), 457; 교황 프란치스코-안토니오 스파다로,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춘심 옮김, (서울: 솔, 2014), 47에서 재인용.

는가? 둘째, 성 파브르의 식별은 갈망 및 신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갈망과 주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고자 하는 신심은 어떻게 하느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도왔는가? 셋째, 성 파브르의 식별은 어떻게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도적 식별로 발전하는가? 그는 교회 안팎의 종교적·정치적 변화의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느님의 뜻을 찾았는가? 이를 위해서 그의 『영적 일기』(*Memoriale*)³⁾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일기』

1.1 생애⁴⁾

성 베드로 파브르는 1506년 4월 13일 프랑스의 사부아에서 출생했다. 당시 교회 안팎의 종교적·정치적 변화의 시대적 상황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종교적으로는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논제를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다. 정치적으로는 1541년 카를 5세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민심은 전쟁의 고통과 흑사병 등으로 인하여 흉흉했다. 특히, 프랑스는 종교적으로는 에라스무스의 사상이 유행했고, 정치적으로는 1525년 파비아 전투의 패배로 인해 정세가 불안했다.

성 파브르는 1525년 9월 파리에 도착하여 생트 바르브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성 이냐시오는 1529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 그들은 이후 4년을 함께 보내면서 같은 갈망과 같은 뜻을 품게 되었다. 그는 1534년 5월 30일에 사제 서품을 받는데, 영신수련에 따른 서품 준비 과정을 성 이냐시오에게 받았다. 같은 해 8월 15일 그는 성 이냐시오와 동료들과 함께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에 위치한 생 드니 소성당에서 청빈과 정결을 서원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을 봉헌하기로 서약

3) 본고에서는 예수회 총원 문서고에서 발행한 *Memoriale*를 『영적 일기』로 번역한다. Pierre Favre, *Fabri Monumenta Beati Petri Fabri, primi sacerdotis e Societate Jesu, Epistolae, Memoriale et Processus, ex autographis aut archetypis potissimum deprompta*, ed., F. Lirola (Matriiti: Typis Gabrielis Lopez del Horno, 1914). 이하 *Memoriale*로 표기한다. 번역은 원문의 뜻을 크게 해치지 않고 충실하면서도 의미를 살려 의역하고자 함.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각주에 원문을 모두 인용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의 의미는 원문을 병기함.

4) 참조: 조지프 킬렌다, 『예수회 성인전』, 박병훈 옮김,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14), 164-168.

한다. 그는 1537년 베네치아의 병원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환자들과 임종하는 이들을 돌보고 고해성사를 들었다. 1537년 교황 바오로 3세는 성 파브르를 로마의 사피엔차 대학으로 파견하여 1539년까지 신학을 강의하고 성경을 주석하도록 임명했다.

1539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예수회를 인가한 이래로 약 7년간 그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보내져, 유럽 전역을 쫓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씩 체류하면서 사명을 수행하였다. 성 파브르의 첫 소임은 파르마에서의 사목이었다. 1540년 그는 독일 보름스에서 열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회의에도 파견되었고, 이후 라티스본으로 떠나 영신수련을 주고 성무를 집행했다. 1541년 스페인 전역에서 활동하였고, 무엇보다도 같은 해에 레겐스부르크 의회에 참여했다. 1542년에는 독일의 슈파이어에 가서 강론과 성사를 주고 피정을 동반했다. 잦은 여행 중에도, 그는 예수회 동료들과의 서신 왕래를 통하여 교회의 위기와 쇠신의 필요성을 전했다. 예컨대, 그는 보름스의 교회에 관하여 성 아나시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시민들은 루터주의자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선함이나 설교에 속은 것이라기 보다 우리 사목자들의 나쁜 표양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⁵⁾ 또한, 그는 예수회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직자들의 무지와 가톨릭 신자들의 혼돈과 무기력에 관하여 적었다.⁶⁾ 그는 이러한 교회 안팎의 혼란한 상황에서 내적 쇠신을 통한 교회 쇠신을 강조하며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회 전체가 우리 시대에 당신의 거처인 교회를 청소하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의 예수회원을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하찮은 도구인 빗자루로 만드시고 사용하게 하소서.”⁷⁾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현세의 이방인으로 살기를 갈망한 그는 끊임없이 세상의 변방으로 나아갔다.⁸⁾ 1544년 7월에는 포르투갈로 파견되어 약 2년간 사목 활동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스페인에도 왕래했다. 1546년에는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서 트렌토 공의회에 파견 받았다. 그러나 약 7년 여간 유럽 전역을 2만km 이상 다니면서 몸이 쇠약해졌고, 결국 열병으로 1546년 8월 1일 운명했다.⁹⁾ 1872년 9월 5일 교황 비오 9

5) *Memoriale*, 59-60; 메리 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203에서 재인용.

6) 참조: 존 오말리, 『초창기 예수회원들』, 윤성희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4), 466.

7) *Memoriale*, n. 441.

8) 참조: *Memoriale*, 253-255.

9) 성 파브르의 여정에 관하여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파브르는 눈에 드러나는 결과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 열매를 보실 수 있는 개개인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했다. 파르마에서 1년, 독일에서 8개월, 스페인에서 5개월, 라인 지방의 슈파이어에서 6-7개월, 마인츠에서 10개월, 쾰른과 플랑드르를 왔다 갔다 하며 거의 1년, 포르투갈에서 6개월, 그리고 다시 스페인에서 1년 2개월을 보냈다. 걷거나, 노새를 타거나, 두 번의 항해를 통한 2만 km 이상의

세에 의해서 시복되었다. 그가 시복된 후 1886년 예수회 총장 피테르 베크스는 그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겸손, 인내, 순명,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갈망,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유럽의 나라들에 나누었다.”¹⁰⁾ 그리고 2013년 12월 17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시성되었다.

1.2 『영적 일기』의 구조와 목적

성 파브르의 일기는 주로 1542년 6월 15일부터 1546년 1월까지 기록되었다. 1542년부터 1543년까지의 일기에는 기도를 통해 받은 은총과 호의에 관하여 기록하였고, 1545년도의 일기에는 사도적 체험에 관하여 주로 성찰하였다. 그리고 1545년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의 기록은 운명하기 전의 기록이다. 1항부터 33항까지는 자서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34항부터 443항까지는 일기체 성격을 지니고 있다.¹¹⁾ 『영적 일기』를 연대기 순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¹²⁾

〈표 1: 『영적 일기』의 구조〉

연 도	장 소	항 목
1542년 6월 15일-10월	슈파이어	1항-144항
1542년 10월 22일-12월	마인츠	145항-203항
1542년 12월 28일-1543년 1월 14일	아사펜부르크	204항-228항
1543년 1월 15일-8월	마인츠	229항-362항
1543년 9월-12월	켈른-뢰번	363항-368항
1544년 12월-1545년 1월	코임브라	369항-397항
1545년 2월-3월 4일	에보라	398항-411항
1545년 3월 18일- 5월	바야돌리드	412항-432항
1545년 5월-1546년 1월	마드리드-갈라파가르	433항-443항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그는 아마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 여정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 파브르는 어떤 곳에서도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다. 그에게 항상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메리 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386-387.

10) “Lettere dei Prepositi generali della Compagnia di Gesù ai padri e fratelli della medesima compagnia”, IV, (Roma, 1886), 233; Angelo Amato, *I santi profeti di speranz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4), 160.

11) 참조: Brian, O’Leary, *Pierre Favre and discernment*, (Oxford: Way Books, 2006), 33.

12) 미셸 드 세르토는 성 베드로 파브르의 연표를 제공한다. 참조: Michel de Certeau S.J., *Bienheureux Pierre Favre: Mémorial traduit et commenté par Michel de Certeau, S.J.*, (Paris: Desclée de Brouwer, 1960), 96-101.

그가 일기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542년 6월 15일의 일기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Benedic anima mea Domino*)¹³⁾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기의 목적에 관하여 적는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체험한 일들 중의 몇 가지를 기억하여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특히 내가 체험했던 ‘감사’(gratiarum actione)와 ‘통회’(contritione)와 ‘연민’(compassione), 또는 성령과 선한 천사의 조언을 통해 내가 받은 ‘영적 정감’(spirituali sentimento)을 써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¹⁴⁾ 이렇듯이, 일기를 쓰게 된 주된 동기는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다시금 떠올리며 주님께 드리는 감사였다.

둘째, 맡겨진 임지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서 체험한 하느님의 은총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성 파브르는 리옹에서 슈파이어까지 가는 길에 겪었던 흑사병과 전쟁 상황에 관하여 성 이나시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자비에 대해 그리고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신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강도들, 전쟁 중인 왕국들의 갈등, 이교도, 병사들, 도시에 창궐하기 시작한 흑사병 등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남았기에 주님께 찬미를 올리며 독일에 도착했다.”¹⁵⁾

셋째, 사목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시련과 도전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식별의 목적이다. 성 파브르는 슈파이어에서 보좌하게 된 모로네 추기경과의 관계에서 불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도전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지역 사제들과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온 첩자라는 오해를 받아 적대시되었다. 그는 성 이나시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사목에서 체험하는 고통과 낙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하느님은 제가 슈파이어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다. 저는 독일에서 과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마침내 매우 밝은 전망을 품게 되었습니다.”¹⁶⁾ 그러나,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에 빠지는 대신에 자신의 내적 움직임을 살피며 식별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13) *Memoriale*, 489.

14) *Ibid.*, 490.

15) *Ibid.*, 159; 매리 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263에서 재인용.

16) *Ibid.*, 187.

1.3 『영적 일기』에 나타난 영적 식별의 중요성

『영적 일기』의 중요한 특성은 영적 식별이다. 성 파브르는 일기를 시작하며 ‘영적 정감’(spirituali sentimento)을 적기로 결심하는데, 같은 해 8월 15일의 일기에서 내적 움직임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선한 영을 악한 영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내면에서 체험하는 각 상태의 높이와 깊이를 ‘알고’(scire), ‘이해하고’(intelligere), ‘마음으로 깨닫는’(sentire)게 매우 중요하다.”¹⁷⁾ 이에 관해 메리 퍼셀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파브르는 기도와 묵상 후에 떠오른 생각들을 메모하고, 그 생각들이 주는 영향들을 분석하곤 했다. 그 생각들이 위로, 깨달음,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오든, 좌절, 슬픔, 불안을 가져오든 상관없었다. 그런 뒤에 이런 생각들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영신수련에서 배운 규칙을 적용했고, 그것들이 유혹인지 자기 암시인지, 혹은 성령의 움직임인지를 판단했다. 따라서 영적 일기는 그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러한 발견에 비추어 무엇을 수행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¹⁸⁾

따라서 성 파브르의 『영적 일기』는 활동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성찰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려는 그의 갈망이 총체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그는 갈망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내적 움직임을 흘려보내지 않고 포착하고 살피고 기억하였다. 이런 지난한 식별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아닌 하느님께서 중심이 되도록 자신을 도구로 내어 드림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이러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본고는 『영적 일기』에 나타난 영적 식별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에드몬드 머피와 존 패드버그는 성 파브르의 『영적 일기』가 식별에 관한 체계적 이론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몇몇 단락의 연구는 식별의 중요한 측면들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성 파브르의 식별 이론이 『영신수련』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대략 짐작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¹⁹⁾ 본고는 머피와 패드버그의 선행 연구가 영문 번역에 기여를 하였지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성 파브르의 식별 이해와

17) Ibid., n. 88.

18) 메리 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276-277.

19) Pierre Favre, *Spiritual Writings of Pierre Favre: the Memoriale and Selected Letters and Instructions*, trans., Edmond C. Murphy, (St. Louis, MO: The Institute of Jesuit Resources, 1996), 46.

적용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자 한다. 라틴어로 기록된 예수회 역사 기록물을 1차 문헌으로 독해하며 머피의 영어 번역본과 델라나토의 이탈리아 번역본을 참고한다. 그리고 미셸 드 세르토의 불어 번역본과 주석서, 브라이언 올리어의 영어 주석서를 참고한다. 또한, 머피의 1996년 영어 번역본 이후, 특별히 2013년 시성식 이래로 발표된 다양한 학술 논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펴본다.²⁰⁾

2. 성 베드로 파브르의 내적 체험으로부터²¹⁾

초창기 예수회원들에게 체험은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께서 체험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신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²²⁾ 특별히, 영신수련과 양심성찰을 통해 내적 위로의 체험을 하면서 예수회원들은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모든 것 안에서 현존하시며 활동하시는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였다. 성 베드로 파브르에게 체험이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체험이며, 이는 그를 향한 하느님의 교육학이었다.²³⁾ 그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성장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뚜렷이 알고자 하였으며 그 뜻을 선택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성 베드로 파브르의 내면의 불안, 신심, 갈망을 각각 살펴보고 영적 식별과의 맥락에서 연관 지어 고찰하고자 한다.²⁴⁾

20) 참조: 이탈리아어로 출간된 안토니오 스파다로의 논문 모음집은 성 베드로 파브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제공한다. *Pietro Favre. Servitore della consolazione*, a cura di Antonio Spadaro, (Milano: Ancora, 2013). 안젤로 아마토는 성 베드로 파브르를 희망의 거룩한 예언자들 중의 한 명으로 그의 성덕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Angelo Amato, *I Santi Profeti di Speranz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4). 예수회 남아시아 지역구에서 출간되는 학술지 Ignis 2014년호는 성 베드로 파브르의 특집호를 게재했다. Ignis, 44/1(2014).

21) 참조: 브라이언 올리어는 성 파브르의 내적 체험의 세 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체험하거나 느끼거나 이해하는 대상, 둘째, 감정이나 경험이 자리를 잡는 자기 존재 내의 위치, 셋째, 체험이나 감정이나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영이다. Brian O'Leary, *Pierre Favre and discernment*, 78.

22) 참조: Ibid., 31.

23) 참조: 미셸 드 세르토는 『영적 일기』에 드러난 성 베드로 파브르의 체험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구원의 체험이라고 주장한다. Michel de Certeau, "Pierre Favre and the experience of salvation", *The Way*, 45/4(2006), 24-25.

24) 참조: 브라이언 올리어는 성 베드로 파브르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망, 정감, 신심, 마음이라는 영적 어휘를 연구한다. 브라이언 올리어,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어휘: 열망, 정감, 신심, 마음」, 국춘심 옮김, 『치발타 카롤리카』, 11(2019, 가을), 42-63.

2.1 내면의 불안과 자비의 체험

“나는 늘 나 자신에 관해 ‘혼란스러웠고’(confusus)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날리듯 했다.”²⁵⁾ 성 파브르는 내면의 불안과 회의로 오랫동안 시련을 겪었다. 마음의 무거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1529년 파리의 생트 바르브 대학 시절을 회고하는 일기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느끼던 ‘세심’(scrupulos)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러한 근심이 나를 너무나도 걱정스럽게 하여 나는 나를 수만 있다면 사막으로까지 기꺼이 가서 평생 약초나 뿌리를 먹으며 지낼 생각도 할 정도였다.”²⁶⁾ 생트 바르브 대학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그는 ‘유혹과 허영의 불’(flammis et aquis tentationum)을 지나며 영신수련을 할 때까지 평화를 얻지 못했다.²⁷⁾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에 관하여 기술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의심하고 마침내 판단을 내리고 마는 유혹으로 매우 힘들었다. … 내가 파리를 떠날 때까지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수많은 약함 하나하나에 세심을 느꼈다.”²⁸⁾ 그는 내적 불안과 회의로 말미암아 깊은 부침을 느끼는 내면의 움직임을 겪었다.

성 파브르는 이나시오를 통해 내면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들려준다. “먼저, 그는 내 ‘양심을 이해’(intelligere conscientiam meam)²⁹⁾하게 해 주었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해하지도 못했고 평화를 얻을 방법도 알지 못한 채 느껴왔던 ‘유혹’(tentationes)과 ‘세심’(scrupulos)도 이해하게 해 주었다.”³⁰⁾ 그는 양심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하는 영적 움직임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었다.³¹⁾ 이를 통

25) *Memoriale*, n. 14.

26) *Ibid.*, n. 9.

27) 참조: *Ibid.*, n. 10.

28) *Ibid.*, n. 11.

29) 주세페 델라나토의 이탈리아어 번역은 ‘Capire la mia coscienza’이다. Giuseppe Mellinato, *Memorie spirituali*, (Roma: Città Nuova, 1994), 68. 미켈리나 테나체는 이 표현에 관하여 흥미로운 해석을 한다. “‘양심을 통해서 뚜렷이 본다.’(vedere chiaro nella mia coscienza)는 의미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것이다.” Michelina Tenace, “Come formare la coscienza?”, *Ignaziana*, 19(2015), 3.

30) *Memoriale*, n. 9.

31) 참조: 성 베드로 파브르의 양심성찰의 이해를 교황 프란치스코의 양심성찰의 설명과 비교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양심성찰을 단지 죄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우리 개인 역사의 사건들 안에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거나 자신의 지혜로 우리를 동반하는 모든 사람의 증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활동을 깨닫기도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282항.

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알고 그 자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된다. “이나시오는 영적인 일들에 관해 내 스승이 되었고, ‘하느님의 뜻’(divinae voluntatis)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깨우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³²⁾

그러면, 성 파브르는 성 이나시오의 양심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을까?

이나시오는 파브르를 2년 동안 수련자처럼 대했는데, 그가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양심성찰을 하도록 했다. [...] 나중에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게 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습관들 하나하나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했다.³³⁾

성 파브르는 악을 멀리하며 악습에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양심성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기록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사랑과 완전한 지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천천히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저급한 것들에 관해 온갖 두려움과 역겨움, 그리고 혐오를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³⁴⁾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일어난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괴로움이나 근심, 세심, 망설임, 두려움, 또는 그 어떤 종류의 약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지체하지 않고 혹은 며칠 내로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verum remedium in Domino nostro)를 찾을 수 있었다.”³⁵⁾

그렇다면 성 파브르가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라고 표현한 하느님 체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그는 고통 중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만나고 체험한 하느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기에”(misericordem et misericordem) 사람들의 ‘수고와 괴로움’(laborem et dolorem)에 무관심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이다. ³⁶⁾ 그는 이제 자신의 비참에 파묻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32) Pierre Favre, *Fabri Monumenta Beati Petri Fabri, primi sacerdotis e Societate Jesu, Epistolae, Memoriale et Processus, ex autographis aut archetypis potissimum deprompta*, ed., F. Lirola (Matriti: Typis Gabriellis Lopez del Horno, 1914), n. 8.

33) 메리 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116.

34) *Memoriale*, n. 66.

35) *Ibid.*, n. 12.

36) *Ibid.*, n. 44.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되돌아갈 기회로 선용하였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나를 들들 부는 ‘자극들’(calcaria)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로 나태하지 않게 두셨다.”³⁷⁾ 이 대목에서 그는 자신의 약함과 비참함이 끝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은총임을 재발견한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 맡긴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소서.’(Miserere mei, Domine, et miserere super me)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당신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며 당신의 향기를 맡으며 당신을 만지고 두려워하고 진실로 기억하고 당신을 알고 당신 안에서 희망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품으며 당신 현존 안에 머무르며 당신에게서 기쁨을 찾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제 안의 모든 악을 저 멀리 몰아내 주소서.³⁸⁾

자비로운 하느님 체험은 자신을 주님께 관대하게 내어 맡기는 내적 태도로 변화되어 그의 영적 식별의 토대를 이룬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떠올리며 영적 식별의 은총을 허락하신 점에 관해 감사드린다. “주님은 내가 구하는 은총을 청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은총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한 치유책은 ‘다양한 영들’(variorum spirituum)을 식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무수한 은총을 포함했다.”³⁹⁾ 성 파브르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영적 식별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여 자유롭게 이끌어 주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나 자신이나 우리 주 하느님이나 내 이웃과 관련하여 수많은 ‘악한 영의 움직임을 식별하게’(discretionem malorum spirituum)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거나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선히고 내게 합당해 보이는 때에,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과 깨우침을 통해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⁴⁰⁾

37) Ibid., n. 12.

38) Ibid., n. 187.

39) Ibid., n. 12.

40) Ibid., n. 12.

2.2 신심⁴¹⁾

브라이언 올리어리는 성 파브르의 내적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심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⁴²⁾ 『영적 일기』의 신심이라는 표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 광범위하여 규정짓기가 어려우므로 불분명할 수 있다. 성 파브르의 신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조지 간스는 성 이나시오의 신심을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기’, ‘영적 위로’,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의 태도’라고 이해한다.⁴³⁾ 『영신수련』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영신수련』의 일러두기 15번은 하느님과 피정을 받는 이의 만남을 동반하는 피정을 주는 이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영신수련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창조주이신 주님이 몸소 그 *열심한 영혼*과 통교하시어 당신 사랑으로 그를 껴안아 당신을 경배케 하고 앞으로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준비시키는 것이 더욱 합당하고 훨씬 더 나은 길이다.”⁴⁴⁾ 여기서 ‘열심한 영혼’은 성 이나시오의 자필서(Autographum)에서는 ‘ánima devota’이며 라틴어본(Versio vulgata)에서는 ‘devotae animae’이다.⁴⁵⁾ 이처럼, 성 이나시오는 피정을 받는 이의 내적 자세를 ‘신심에 찬 영혼’으로 이해했다. 마이클 아이븐스는 『영신수련』의 기도에 관한 부칙을 예로 들면서 ‘신심’에 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⁴⁶⁾ 기도의 부칙은 다음과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

41) 참조: 오늘날 신심의 이해를 파악하려면 다음의 설명을 참조할 것. “한국 교회 안에서 ‘신심’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신심 운동’이나 ‘신심 행위’의 차원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일반적인 정의는 ‘하느님을 섬기려는 깊은 헌신과 열렬한 의지’를 가리킨다. 동시에 ‘신심’이라는 말이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교적인 규율의 준수와 기도 혹은 예식의 외적 형태들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신심’은 ‘영성’이라는 말과도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비의 신심’과 ‘자비의 영성’, ‘마리아 신심’과 ‘마리아 영성’이 함께 사용된다. 종합적으로 ‘신심’은 ‘신앙의 선물에 응답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이러한 시도 없이 하느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살아갈 수 없다.” 정창주, 「성녀 파우스티나의 영적 유산」, 『가톨릭사상』, 56(2018), 70.

42) 참조: 브라이언 올리어리,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어휘: 열망, 정감, 신심, 마음」, 51.

43) 참조: George E. Ganss, *Ignatius of Loyola: The Spiritual Exercises and Selected Works* (New York and Mahwah, N.J.: Paulist Press, 1991), 437; 김영훈,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리더십: 예수회 회원을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28(2016), 189.

44)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9), n. 15. 이하 『영신수련』이라고 한다.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

45) Sancti Ignatii de Loyola, *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de Loyola et eorum directoria*, Tomus I, eds., Cándido de Dalmases, José Calveras, Romae: Institutum historicum Societatis Iesu, 1969, 154.

46) 참조: Michael Ivens, *Keeping in Touch: Posthumous papers on Ignatian topics including tributes*

면 그 요점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려는 조바심을 갖지 않고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머문다.”⁴⁷⁾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라틴어본(*Versio vulgata*)에서는 ‘*quaesitam devotionem*’이다.⁴⁸⁾ 따라서, 관상 기도의 양이 아닌 질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부칙의 핵심은 ‘충분히 신심을 발견할 때까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아이븐스는 『영신수련』에 나타난 신심이란 영적 위로의 형태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체험이라고 정의한다.⁴⁹⁾

신심을 영적 식별과 관련하여 『영신수련』의 설명 속에서 좀 더 살펴보자. 영적 실패의 세 가지 이유 중의 하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인식을 주어서 ‘큰 열심’과 뜨거운 사랑과 눈물이나 다른 어떤 영적 위로를 일으키거나 갖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⁵⁰⁾ 여기서 ‘큰 열심’은 성 아나시오의 자필서(*Autographum*)에서는 ‘*devoción crescida*’이며 라틴어본(*Versio vulgata*)에서는 ‘*fervorem devotionis*’로 ‘큰 신심’을 뜻한다.⁵¹⁾ 하여, 신심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다. 『영신수련』의 신심에 이해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올리어리는 성 파브르의 신심이란 구체적으로 “선물이요 은총이며, 호의이자 인생의 순례 길에서 주어지는 도움이다.”라고 말한다.⁵²⁾

이제 성 파브르가 표현하는 신심의 정의를 내려 보자. 성 파브르의 신심이란 “은총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을 향하는 인간 의지의 방향 정립”이다.⁵³⁾ 혹은,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내어 맡기는 의탁의 내적 움직임이다.⁵⁴⁾ 그는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향하고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이끌리기를 갈망했다. 이 점이 그의 신심의 특징이다. 그는 『영적 일기』를 시작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대목에서 자신 안에 아로새겨진 신심의 은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겨우 일곱 살 정도였을 때 ‘신심의 특별한 움직임’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이시며 내 영혼의 동반자이신 분이 내 영혼의 깊은

by various authors, ed., Joseph A. Munitiz, (Leominster: Gracewing, 2007), 124.

47) 『영신수련』, n. 76.

48) Sancti Ignatii de Loyola, *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de Loyola et eorum directoria*, 208.

49) 참조: Michael Ivens, *Keeping in Touch*, 124.

50) 『영신수련』, n. 322.

51) Sancti Ignatii de Loyola, *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de Loyola et eorum directoria*, 382.

52) 참조: 브라이언 올리어리,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어휘: 열망, 정감, 신심, 마음」, 51.

53) 참조: Ibid.

54) 참조: Michel de Certeau, “Pierre Favre and the experience of salvation”, 25.

곳을 가지시길 바라셨다고 생각한다. 내 편에서 다시는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뉘뉘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달았다면 좋았을 것!”⁵⁵⁾

그러나 이러한 신심에 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신심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그는 성모 대성전 봉헌 기념일에 며칠간의 기도와 묵상 중에 지속적으로 느꼈던 영혼의 불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나는 지난 며칠의 기도와 묵상 중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신심을 발견할 수 없는 지속적 불만족 상태에 두셨는지 깨달았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른 갈망보다 ‘신심을 찾는 갈망’(desiderium inueniendi eam)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⁵⁶⁾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신심을 좇기 보다는 ‘신심을 찾는 갈망’을 찾도록 이끄신다고 믿었다. 따라서 신심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갈망을 더 키워나가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또한 큰 신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신심뿐만이 아니라 신심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목마름, 그리고 심지어 신심을 느끼지 못하는 슬픔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⁵⁷⁾ 그는 단순히 신심을 느끼지 못하는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신심이 더 커지기를 청했다. 무엇보다도 만사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허기는 신심을 자신의 영혼에 आरो새기는 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였다. 파브르가 자신의 영혼에 품은 이 신심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구하는 갈망으로 하느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고자 하는 완전한 갈망이다.⁵⁸⁾

2.3 갈망⁵⁹⁾

성 파브르의 『영적 일기』의 일부 사본에 사용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스승

55) *Memoriale*, n. 2.

56) *Ibid.*, n. 63.

57) *Ibid.*, n. 173.

58) *Ibid.*, n. 63.

59) 참조: 앙리 마르탱은 갈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느님께서 최상의 선이시요 사랑받으실 만한 선(善)이시기에 갈망은 첫째로 하느님께서 행사하시는 끌어당김(매력)의 표현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여기 지상에서는 결코 온전하게 소유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갈망은 또한 점점 더 내밀해지는 하느님과의 결합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Henry Martin, “Désirs”,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III*, (Paris: Beauchesne, 1957), 609; 브라이언 올리어리,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어휘: 열망, 정감, 신심, 마음」, 46에서 재인용.

베드로 파브르 신부의 ‘선한 갈망’(desyderiorum bonorum)과 생각 일부가 여기에 담겨 있다.”⁶⁰⁾ 이 제목처럼 『영적 일기』에는 갈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기에, 성 파브르는 ‘갈망의 사람’(l’homme de désirs)이라고 불렸다.⁶¹⁾ 그의 갈망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신수련』의 맥락에서 갈망을 살펴보자. 『영신수련』은 갈망의 학교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 이나시오는 준비 기도를 설명하며 청하는 은총으로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나의 모든 의향과 내적, 외적 행위가 순전히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우리 주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⁶²⁾ 그뿐만 아니라, 길잡이 기도에서도 ‘원하고 바라는 것’(lo que quiero y deseo)을 청하라고 말한다.⁶³⁾ 더 중요한 점은,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el Señor desea dársele)으로 바뀌는 관점의 전환이다.⁶⁴⁾

성 파브르는 갈망의 기원과 목적에 근거하여 이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이해한다. “만약, 하느님에게서 오고, 하느님을 통하여,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면 ‘갈망은 그 자체로 선하다.’(desideria ipsa bona sunt)”⁶⁵⁾ 그는 선물로서 주어진 갈망을 통하여 하느님께 중심을 두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친교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따라서, 성 파브르는 자신의 욕구를 쫓는 무질서한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서 있는 갈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청했다. 파브르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찬미하고, 공경할지, 어떻게 주님께 관해 생각하고 알게 될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갈망하고 섬길지,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향기를 맡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만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길 청했다.”⁶⁶⁾ 따라서, 이 갈망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는 『영적 일기』에서 “갈망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me entró)거나 “내게 주어졌다.”(datum est mihi)라는 표현을 자

60) *Memoriale*, n. 489.

61) George Guitton, *L'âme du bienheureux Pierre Favre*, (Paris, 1934); Brian O'Leary, *Pierre Favre and discernment*, 56에서 재인용. 그러나 스스로는 자신의 갈망의 결어를 성찰하고 마음 아파했다. “나는 진정한 갈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Memoriale*, n. 62.

62) 『영신수련』, n. 46.

63) Sancti Ignatii de Loyola, *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de Loyola et eorum directoria*, 186.

64) *Ibid.*, 308.

65) *Memoriale*, n. 155.

66) *Ibid.*, n. 51.

주 사용한다.⁶⁷⁾ 그는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의 정신에 따라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도록 그리고 이웃이 창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영적 갈망을 키웠는데 그 수단으로써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나쁜 영이 아니라 선한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갈망했다.⁶⁸⁾ 따라서 이 갈망은 영의 식별을 위한 자원이 된다. “영은 갈망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⁶⁹⁾

성 파브르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행할 은총도 허락하신다는 점을 깨닫는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에 나는 내 모든 행동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갈망’(magnum desiderium)하였다. 그리고 어떤 시인에 관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내 정신이 명료하게 깨달았기에 ‘깊은 위로’(magnum consolationem)를 받았다.”⁷⁰⁾ 그리고 그의 신심으로 주어지는 영적 위로도 주님의 선물로 체험한다. 삶의 목적으로써 원리와 기초를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갈망과 그 수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고자 하는 영적 식별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3.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신수련』 식별에 대한 이해

에드먼드 머피와 존 패드버그는 성 파브르의 『영적 일기』가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식별 규칙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⁷¹⁾ 그러나 이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유보하였다. 본고는 그들이 대략 짐작했던 성 파브르의 식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영신수련』 식별 규칙들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그의 식별 이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3.1 첫째 주간에 적합한 영들의 식별 규칙들

먼저 식별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찬미하고

67) Pierre Favre, *Spiritual Writings of Pierre Favre*, 2-3.

68) 참조: *Memoriale*, n. 51.

69) *Ibid.*, n. 300.

70) *Ibid.*, n. 346.

71) 참조: Pierre Favre, *Spiritual Writings of Pierre Favre*, 46.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갈망이다. 성 파브르는 성 이나시오의 식별 규칙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영감을 들려준다. “우리가 성령과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우선적인 의향을 하느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려는 결심으로 향하도록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하느님이 거룩한 일들 안에 계시고 하느님 자신도 거기에서 선익을 찾으시기 때문이다.”⁷²⁾ 이와 같은 내적 자세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다.

성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에서 식별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심정의 ‘여러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느끼고 알아차려서’ 선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배척하기 위한 규칙들이다.”⁷³⁾ 여기서 심정의 ‘여러 변화들’은 영혼의 내적 체험으로써 성 이나시오의 자필서(Autographum)에서는 ‘las varias mociones’로 표현하고 ‘느끼고 알아차려서’는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sentir y cognoscer’로 표현한다.⁷⁴⁾ 즉, 식별하기 위해서 내적 움직임의 기원과 성격과 방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으로 깨닫는 ‘sentir’⁷⁵⁾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성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의 일러두기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맛을 들이는 데에’(sentir y gustar) 있다고 들려준다.⁷⁶⁾ 영적 식별의 맥락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sentir’는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함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 파브르는 영적인 사안에 관해 ‘이는 것’(saber)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sentir)을 구별한다.⁷⁷⁾ 그는 무엇보다도 “선한 영을 악한 영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내면에서 체험하는 각 상태의 높이와 깊이를 ‘알고’(scire), ‘이해하고’(intelligere), ‘마음으로 깨닫는’(sentir)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⁷⁸⁾ 예를 들어서, 그는 성 베드로 카

72) *Memoriale*, n. 54.

73) 『영신수련』, n. 313.

74) Sancti Ignatii de Loyola, *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de Loyola et eorum directoria*, 374.

75) 『영신수련』에서 ‘sentir’는 마음으로 아는 지식의 의미를 포함한다. “느끼다, 생각하다, 깨닫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감각적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해서 깨우침을 말한다.”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한채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0), 74. ‘Sentir’의 사전적 정의를 보려면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Javier Melloni, “Sentir”, *Diccionario de Espiritualidad Ignaciana* 2, ed., José García de Castro, (Bilbao and Santander: Mensajero, 2007), 1631-1637.

76) 참조: Sancti Ignatii de Loyola, *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de Loyola et eorum directoria*, 142.

77) 참조: Brian, O’Leary, *Pierre Favre and discernment*, 85.

니시우스의 영신수련을 동반할 때 식별을 위해 생각보다는 내적 움직임을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성찰을 남긴다.

영의 식별을 위해서는 우리 관심을 마음속 생각과 말투에 두는지, 아니면 영 자체에 두는지를 살피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매우 설득력 있는 내적 움직임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영은 ‘갈망’(desideria)과 ‘감정’(affectus), ‘영혼의 강점’(fortitudinem animi)이나 ‘약점’(debilitatem), ‘평온’(tranquillitatem)이나 ‘불안’(inquietudinem), ‘기쁨’(laetitia)이나 ‘슬픔’(tristitia) 등을 비롯한 ‘영적 감정’(affectus spirituales)을 통해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cogitationes)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영혼에 관해서, 또 영혼을 움직이는 영들에 관해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⁷⁹⁾

이와 같이 영적 식별을 위해서 영혼의 내적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이는 지식으로서의 ‘sentir’의 체험에 주목한다.

3.2 영적 위로

성 파브르는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으로부터 영적 위로의 체험을 내면화한다. 성 이냐시오는 규칙 3에서 영적 위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로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며 영혼이 창조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서만 사랑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창조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⁸⁰⁾ 여기서 ‘감동’이란 곧, ‘내적 움직임’(moción interior)으로 홀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movimiento)이다. 성 파브르에게 영적 위로는 “내가 느꼈던 감사와 회개와 연민의 마음, 또는 주님에게서 왔거나 선하신 나의 천사의 조언을 통해 내가 갖게 된 다른 ‘영적 느낌’(spirituali sentimento)”⁸¹⁾이다. 이를 두고 세르투는 말하기를 “(그가 체험한 내적) 위로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징표가 되었다. 여기서 하느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 하느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호의를 베푸시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한다.⁸²⁾

78) 참조: *Memoriale*, n. 88.

79) *Memoriale*, n. 300.

80) 『영신수련』, n. 316.

81) *Memoriale*, 490.

더 중요한 점은, 영적 위로가 ‘창조주 주님에 대한 사랑’(amor de su Criador y Señor)이라는 점이다. 성 파브르는 바로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창조주 주님만을 사랑하는 위로의 체험을 하며, 특히 사도적 활동의 성공에서 오는 위로나 실패에서 오는 실패의 체험으로부터 하느님에게서 오는 참된 위로의 체험을 성찰한다.

은총에 힘입은 영혼의 진보나 퇴보와 관련하여 나를 곤란케 했던 갈망에서 실상 나 자신이 그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나 자신이 실패를 체험했을 때에는 슬퍼지곤 했고, 성공을 체험할 때에는 위로를 받고는 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 성인들에게 이끄시는 풍요로운 신심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위로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⁸³⁾

이와 같은 영적 위로의 체험은 주님을 향한 찬미로 나아간다. 성 파브르는 위의 글을 적은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께는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끄는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씩 이끌어 주십니다.”⁸⁴⁾ 그 뿐만 아니라, 영적 위로의 체험은 이웃에 대한 애덕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느님께서는 저와 모든 형제들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애덕을 허락해 주소서.”⁸⁵⁾ 따라서, 성 이냐시오의 영적 위로에 관한 표현인 ‘모든 것을 창조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때’를 성 파브르는 창조주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하는 것으로 성찰한다.

성 파브르는 ‘내적 움직임’(moción interior)을 간과하지 않고 항구하게 성찰을 하며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위로를 성찰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브르는 영적 위로의 요소인 ‘신심(devotio)과 평화(pax)와 눈물(lachrimae)을 가져다 주는 선한 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⁸⁶⁾ 자신을 발견한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끝기도를 하며 자신의 영혼을 다음과 같이 바라본다. “나는 내 영혼이 낙심하여 쓸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제저녁부터 오늘 종일토록 마음이 크게 혼란스러웠다. 나는 선한 영의 이끄심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건만, 안타깝게도 내 오래된 약함과 어떤 결점이 올라왔기 때문이다.”⁸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

82) 참조: Michel de Certeau, “Pierre Favre and the experience of salvation”, 24.

83) *Memoriale*, n. 65.

84) *Ibid.*, n. 66.

85) *Ibid.*, n. 67.

86) *Ibid.*, n. 101.

다. 오히려 성모님과 성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영적 위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데서 위로를 받았다. “어쩌면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 마음의 상처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느님에게 기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로’(consolatio)를 받았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내 불완전함을 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특별한 열심으로 우리 주 하느님께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자 이런 생각들이 ‘큰 희망’(multam spem)과 함께 나를 가득 채웠다.”⁸⁸⁾ 성 파브르는 불안과 조바심으로 초조했지만 부단함으로 하느님만이 주시는 영적 위로를 추구했다.

3.3 영적 실망

성 이나시오는 규칙 4에서 영적 실망에 관하여 들려주는데,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며 비속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희망도 사랑도 사라지며, 게으르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스스로가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이다.”⁸⁹⁾라고 말한다. 성 파브르는 영적 실망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악한 영들은 만사를 악감정으로 보게 호도하여 모든 일이 잘 안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울게 하며 혼란스럽게 과장하는데 이를 신뢰하면 안 된다. 악한 영들은 그 본성대로 모든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한다.”⁹⁰⁾ 그는 자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의 절망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직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일으키는 영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성 이나시오는 규칙 5에서 영적 실망에 빠졌을 때는 악한 영의 권고를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 “실망에 빠졌을 때에는 결코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실망에 빠지기 전에 의도하였던 것들이나 결정한 것 또는 전에 위로 중에 있을 때 결정한 것에 변함없이 항구하여야 한다.”⁹¹⁾ 성 파브르는 자신이 낙심했을 때 어떻게 내적 움직임을 느끼고 알아차려서 대처했는지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87) Ibid., n. 101.

88) Ibid., n. 101.

89) 『영신수련』, n. 317.

90) *Memoriale*, n. 158.

91) 『영신수련』, n. 318.

내 영혼이 ‘낙담’(reptilitatis)하여 ‘의기소침한’(demişsionis) 상태라 말할 수 있는 바를 주의 깊게 의식하면서, 나는 은총을 통해 내 정신이 들어 높여지기를 청했다. 그리하여 나는 나약함을 느끼도록 부추기는 영에 반복적으로 비굴하게 굴복하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려가며 나 자신을 비하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위를 바라보는 삶 안에서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했다.⁹²⁾

성 파브르는 비록 깊은 영적 실망에 빠졌지만, 결코 악한 영의 권고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했다.

성 이냐시오는 규칙 6에서 실망에 거슬러 힘껏 대응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실망 중에는 처음에 세운 목적들을 바꾸지 말아야 하지만 실망에 거슬러서 힘껏 대응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므로, 기도와 묵상에 더욱 노력하고 더 많이 성찰하고 적당한 형태의 고행을 더 늘리도록 한다.”⁹³⁾ 성 파브르는 깊은 슬픔에 젖어 절망에 빠져 있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목도하는데, 실망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사순 시기 동안 이런저런 생각과 내적 움직임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음을 성찰했다. 이는 내 ‘비참함’(miseriarum)과 ‘불완전함’(imperfectionum)의 상처가 닳아고 있다는 뜻이다. [...] 내 영혼은 예전에 인식했듯이 평화의 안식처였던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 내 육체는 유년 시절 이래로 오직 ‘죽음’(mors)과 ‘불안’(inquietudo)밖에는 찾지 못했던 것들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내 활동의 ‘무질서’(inordinationes)와 ‘나태’(torpor), 영적 감수성의 결여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듯했다. 즉,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그 모든 악한 감정이 사순절 기간 되살아났다. [...] 그 혼돈의 움직임 한가운데에서 나는 ‘슬프고’(tristic) ‘의기소침해’(afflictus) 있었다.⁹⁴⁾

그러나 그는 회복하는 탄성력을 지닌 존재였기에 영적 실망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와 묵상에 더욱 노력하고 더 많이 성찰했다. 그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다음과 같이 묵상했다.

하지만 내 영혼의 이러한 상태를 다시 성찰하기 시작하자 나는 이 모든 일이 내게 도움이 된

92) *Memoriale*, n. 184.

93) 『영신수련』, n. 319.

94) *Memoriale*, n. 268.

다는 걸 깨달으며 ‘영적 위로’(comfortatione spiritus)를 체험했다. 우리 주님의 수난에 봉헌된 이날과 이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의 상처, 고통, 죽음, 그리고 그분이 당한 모욕과 수치와 업신여김을 기억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 공로를 기념하는 이 시기에 내 병이 남긴 영적 상처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흉터를 개봉하여 일종의 새 상처가 되는 것은 내게 유익함이 틀림없다.⁹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의 힘만으로 실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의 은총에 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영적 위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 이나시오가 규칙 9에서 말하는 영적 실망에 빠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세 번째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인식을 주어서 우리가 큰 열심과 뜨거운 사랑, 눈물이나 다른 어떤 영적 위로를 일으키거나 갖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⁹⁶⁾

그러면 성 이나시오는 실망에 빠지는 또 다른 두 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까? “우리가 영적인 수련들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소홀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탓으로 영적 위로가 떠나간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얼마만 한 존재인지, 즉 위로와 넘치는 은총의 상급이 없이 우리가 봉사와 찬미에 있어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다.”⁹⁷⁾ 성 파브르는 자신이 실망에 빠진 이유를 대화체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네가 주님의 선한 선물들에 너무나 미온적이라 이런 시련에 잠시 처하게 놔두시는 것이다. 그러고서 네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거나 차갑게 되지 않고 마침내 우리 주 하느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까지 그분은 네가 쉬지 않고 나아가도록 찢리고 매를 맞아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⁹⁸⁾

성 이나시오는 규칙 10에서 위로 중에 있는 이는 다음에 실망이 올 때 어떻게 처신할지를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서 새로운 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⁹⁹⁾ 성 파브르

95) Ibid., n. 269.

96) 『영신수련』, n. 322.

97) Ibid., n. 322.

98) *Memoriale*, n. 54.

99) 참조: 『영신수련』, n. 323.

는 자신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외주시기를 성모님께 청한다. 그는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지만,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 영적 ‘허기’(fames)와 ‘목마름’(sitis)이라는 가장 ‘완벽한 겸손’(perfectissimae humilitatis)을 사셨다고 목상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당신의 은총이 제게서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때 제가 항구하게 더 담대해지고 지혜를 키워 당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께 내어 맡기는 제 내적 태도가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영혼에 머무르게 하시어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뜨겁지 않게 살아갈 때에도 제가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게 하소서.”¹⁰⁰⁾

성 이냐시오는 규칙 11에서 위로의 때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도록 하고, 실망의 때에는 주님께 힘을 얻어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초대한다.¹⁰¹⁾ 성 파브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적용하여 성찰한다. “시련의 때에 영적 성장을 돕는 두 가지 길 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영원한 고뇌를 목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목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로의 때에도 그리스도의 수난을 목상하고 나 자신을 겸손으로 이끄는 것을 목상함으로써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¹⁰²⁾

3.4 둘째 주간에 적합한 영들의 식별 규칙들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둘째 주간에 적합한 영들의 식별 규칙들을 들려주면서 규칙 1에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상반되게 영혼을 이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느님과 그 천사들은 영혼에 감동을 일으켜서 진정한 즐거움과 영적 기쁨을 주며, 원수가 빠트리 는 온갖 슬픔과 혼란을 없앤다. 그리고 원수는 본래 그럴싸한 이유들과 교묘하고 한결같은 속임수로써 이런 즐거움과 영적 위로를 없애려고 애쓴다.”¹⁰³⁾ 성 파브르는 자신의 불 완전함이라는 속박과 굴레에서 허우적거림을 느꼈을 때, “주님,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꾀 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라는 시편 43장의 구절을 암송하며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원수가 꾀박한다고 해서 어찌하여 의기소침해 있느냐? 원수가 너를 괴롭힌다면 네가 원수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앎게 하

100) *Memoriale*, n. 89.

101) 참조: 『영신수련』, n. 323.

102) *Memoriale*, n. 110.

103) 『영신수련』, n. 329.

신다면, 너에게는 슬퍼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네가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¹⁰⁴⁾ 성 파브르는 꾀박이라는 정서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원인과 목적을 살피고 어떻게 그에 대처해야 할지를 성찰했다.

성 이냐시오는 규칙 3에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영혼에 이유가 있는 위로를 주는 목적이 정반대라고 말한다. 전자는 영혼이 성장하여 선에서 더 큰 선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인데 반해서, 후자는 영혼이 사악함으로 젖어 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¹⁰⁵⁾ 성 파브르는 자신을 자주 불안하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영들에 관해서 묵상하며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지 속삭이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영의 말들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자주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영의 말들과 영향에 더 마음을 모아야 한다.”¹⁰⁶⁾ 성 이냐시오가 규칙 4에서 빛의 천사의 모습을 취하며 열심한 영혼을 속이는 악한 천사를 가르쳐 주듯이¹⁰⁷⁾, 성 파브르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악한 영을 경계하도록 성찰한다. “우리는 기쁨과 위로, 평안함과 고요함, 그리고 선한 내적 자유에서 샘솟는 모든 정서를 유지해야 하며 마침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들려오는 모든 말을 같은 방식으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다.”¹⁰⁸⁾

성 이냐시오는 규칙 6에서 인간 본성의 원수의 전형적인 속임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생각들의 시작과 진행을 살펴보라고 조언한다.¹⁰⁹⁾ 성 파브르는 자신의 내면을 면밀히 살피면서, 위로라고 하더라도 비본질적인 데서 시작한 위로는 자나침으로 끝나거나 피상적 기쁨으로 속여서 마음의 안정을 흔든다고 성찰한다. “인간 본성의 원수는 결국은 슬픔을 가져다줄 피상적 행복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 들뜬 감정을 느끼도록 유혹한다. 따라서 영혼의 이러한 내적 움직임들과 이러한 영적 추동들을 시작하고 진행하며 마치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 잘 살피고 조심하자.”¹¹⁰⁾

104) *Memoriale*, n. 53.

105) 참조: 『영신수련』, n. 331.

106) *Memoriale*, n. 254.

107) 참조: 『영신수련』, n. 331.

108) *Memoriale*, n. 254.

109) 참조: 『영신수련』, n. 334.

110) *Memoriale*, n. 304.

성 파브르에게 영적 식별이란 어떻게 성령께서 자기 자신과 세상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지를 관상함이다. 그는 『영신수련』의 식별 규칙을 하나의 교본처럼 간주하여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습득하기보다는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로 이해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친다. “오 나의 하느님, 제가 제 모든 행위에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possem distincte cognoscere vestram voluntatem) 하소서. 그것이 제게 가장 기쁜 삶이기 때문입니다.”¹¹¹⁾ 성 파브르는 이 모든 영의 식별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분께만 신뢰를 두며 사도적 갈망을 키워나간다. 지금까지 본고가 연구한 『영신수련』과 『영적 일기』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성 파브르의 『영적 일기』와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영적 식별에 관한 규칙 비교〉

내 용	『영적 일기』	『영신수련』
영적 식별의 목적(정의)	88항/300항	313항
하느님을 섬기는 데 더욱 성장하는 이들을 향한 선한 영과 악한 영의 방법	409항	315항
영적 위로	65항	316항
영적 실망	158항	317항
악한 영의 권고를 따르지 말 것	184항	318항
영적 실망에 거슬러서 힘껏 대응할 것	269항	319항
영적 실망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	54항	322항
영적 위로 중에 실망에 대비하여 새로운 힘을 마련할 것	89항	323항
영적 위로나 실망 중에 있을 때 내적 태도	110항	324항
선한 천사와 원수의 상반된 활동	53항	329항
선한 천사와 원수가 주는 위로의 목적	254항	331항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악한 천사의 의도	254항	332항
인간 본성의 원수의 전형적인 속임수	304항	334항

나가는 말

성 파브르에게 영적 식별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거나 사지선다형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는 일상의 존재 방식이다.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과 세

111) Ibid., n. 236.

상 안에서 어떻게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지를 관상함이다. 그는 불안했지만 양심성찰을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이끄는 움직임과 멀어지게 하는 움직임들을 구별했다. 자신 안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감동을 받으며 하느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신심과 갈망을 키워나갔다. 또한, 종교적인 격변기에 하느님의 관점으로 시대의 표징을 읽고자 하였다. 그는 당대의 긴장과 분열 속에서도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며 화해와 일치의 영을 살아갔다. 본고는 성 파브르가 갈망과 신심으로 가득 차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 살아간 그의 식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발견한다.

첫째, 성 파브르의 영적 식별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의 자리이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함으로써 내면의 움직임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식별을 배운다. 그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라는 영적 투쟁을 통해서 악한 영은 물리치고 선한 영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영적 투쟁은 자신의 힘만을 믿고 홀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의 장소이다. 그리하여 주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청한다. 따라서 성 파브르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더 큰 질그릇’이 될 수 있게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은총을 주소서. 더 쓸모 있고 순수한 마음의 그릇이 되어 악한 영들은 담지 않고 선한 영들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¹¹²⁾ 그는 자신의 약함과 죄스러움을 주님이 동반하시도록 내어 맡김으로써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갈망한다.

둘째, 성 파브르의 영적 식별에 드러난 갈망과 신심의 중요성이다. 그는 자신의 신심의 부족함을 가슴 아파했다. 그러나 식별의 도움으로 성 파브르는 신심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때로는 신심이 적을수록 더욱더 부단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 “나는 또한 큰 신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은총과 우리의 노력에 달린 바를 최대한 활용하며 하느님에게서 받는 작은 은총이라도 협력해 드려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¹¹³⁾ 또한, 성 파브르는 어떻게 자신의 영적 위로를 이웃과 나눌 수 있을지를 주님께 청하고 갈망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총으

112) Ibid., n. 88.

113) Ibid., n. 173.

로 내가 선한 영의 도움으로 나 자신과 이웃의 선익을 위해서 체험한 바에 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길 ‘갈망’(desiderium)했다.”¹¹⁴⁾ 이렇듯이 성 파브르의 갈망과 신심은 하나의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엮여 그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셋째, 성 파브르의 식별은 사도적인 특징을 지닌다.¹¹⁵⁾ 그가 배운 식별은 그 자신의 표현처럼 단지 자신의 약함을 낮게 하는 치유약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도적 식별로 성장한다. 그는 피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한 긴장과 갈등의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식별하고자 한다. 창조적인 식별은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식별이다. 그가 ‘더 큰 질그릇’(capacius vas)과 ‘더 쓸모 있고 순수한 마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께 간청한 목적은 사도적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그는 “‘선한 영의 도구’(instrumentum boni spiritus)가 되려고 노력하라.”¹¹⁶⁾는 기도를 바치며 성령의 이끄심을 겸손히 청했다. 교회 안팎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 적대적인 이들을 만나며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시련 중에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식별한다.¹¹⁷⁾ 절망적인 사도적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영은 그의 식별을 잘 드러낸다. “네 수고로 일하는 외적 활동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¹¹⁸⁾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좇지 않고 인내와 항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식별의 특징은 오늘날 어떤 가치 있는 영감과 의미를 제시하는가? “내 삶은 어떤 면에서 쉴 새 없는 순례자였다.”¹¹⁹⁾ 성 파브르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외적으로 유럽 전역을 여행한 선교사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언제나 마음의 중심으로 둔 신심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뜻만을 찾고 발견하고자 갈망하였다. 교회의

114) Ibid., n. 52.

115) 예를 들어 성 파브르의 신심은 단지 느끼는 차원의 신심은 아니었다. 올리어리는 성 파브르의 신심을 성품과 신앙, 그리고 성체성사에 주목하여 연관 짓는 데 반해, 세르투는 그의 신심과 사도적 체험을 연관 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세르투는 성 파브르의 신심은 내적 기도 생활에서 자라나 지상의 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향하는 희망이라고 말한다. Michel de Certeau, “Pierre Favre and the experience of salvation”, 33.

116) *Memoriale*, n. 158.

117) 참조: Ibid., n. 170.

118) Ibid., n. 279.

119) Ibid., n. 286.

일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영적 식별은 정해진 교본에 따라 확실함을 얻기 위해 습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내적 태도이다. 오늘날 식별의 은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게 되었다면¹²⁰⁾, 성 파브르의 하느님과 의 인격적 관계를 존재의 중심에 두고 사랑을 실천하며 일치를 추구한 식별이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 안에서 성 파브르의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청하자고 초대한 강론은 이 논문의 목적과 방향을 잘 요약 정리해 준다.

파브르 성인은 하느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갈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도 안에서 잠시 멈추어 보고 고요한 열정으로 우리 형제 베드로 파브르 성인의 전구를 통해서 주님께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파브르 성인을 모든 사도적 갈망으로 이끄신 그 매력에 우리가 다시금 매료되도록 말입니다.¹²¹⁾

120)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67항.

121)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0103_omelia-santissimo-nome-gesu.html (접속일: 2019. 8. 4); 매리 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김치현·김학준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9.

참고문헌

교회 문헌

-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hristus Vivit*),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_____,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예수회 역사 문헌

- Favre, Pierre, *Fabri Monumenta Beati Petri Fabri Primi Sacerdotis e Societate Jesu Epistolae, Memoriale et processus*, Matriti: Typis Gabrielis Lopez del Horno, 1914.
- Nicolás, Adolfo, “Con motivo de la canonización de Pedro Fabro S.J.”, *Acta Romana Societatis Iesu*, XXV-III(2013), 831-836.
- Sancti Ignatii de Loyola, *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de Loyola et eorum directoria*, Tomus I, eds., Cándido de Dalmases, José Calveras, Romae: Institutum historicum Societatis Iesu, 1969.

연구 문헌

- 교황 프란치스코·안토니오 스파다로,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춘심 옮김, 서울: 솔, 2014.
- 김영훈,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리더십: 예수회 회헌을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28(2016, 봄), 183-213.
-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9.
- _____,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한채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0.
- 오말리, 존, 『초창기 예수회원들』, 윤성희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4.
- 울리어리, 브라이언,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어휘: 열망, 정감, 신심, 마음」, 국춘심 옮김, 『치빌타 카톨리카』, 11(2019, 가을), 42-63.

- 정창주, 「성녀 파우스티나의 영적 유산」, 『가톨릭사상』, 56(2018), 69-103.
- 틸렌다, 조지프, 『예수회 성인전』, 박병훈 옮김, 서울: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4.
- 퍼셀, 메리, 『베드로 파브르 성인』, 김치현·김학준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 Amato, Angelo, *I Santi Profeti di Speranz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4.
- De Certeau, Michel, “Pierre Favre and the experience of salvation”, *The Way*, 45/4(2006), 21-40.
- _____, *Bienheureux Pierre Favre: Mémorial Traduit et commenté par Michel de Certeau, S.J.*, Paris: Desclée de Brouwer, 1960.
- Favre, Pietro, *Servitore della consolazione*, a cura di Antonio Spadaro, Milano: Ancora, 2013.
- _____, *Spiritual Writings of Pierre Favre: the Memoriale and selected letters and instructions*, trans., Edmond C. Murphy, St. Louis, MO: The Institute of Jesuit Resources, 1996.
- Ganss, George E., *Ignatius of Loyola: The Spiritual Exercises and Selected Works*, New York and Mahwah, N.J.: Paulist Press, 1991.
- Ivens, Michael, *Keeping in Touch. Posthumous papers on Ignatian topics including tributes by various authors*, Ed., Joseph A. Munitiz, Leominster: Gracewing, 2007.
- Mellinato, Giuseppe, *Memorie spirituali*, Roma: Città Nuova, 1994.
- Melloni, Javier, “Sentir”, in *Diccionario de Espiritualidad Ignaciana* 2, Ed., José García de Castro, Bilbao and Santander: Mensajero, 2007, 1631-1637.
- Michelina, Tenace, “Come formare la coscienza?”, *Ignaziana*, 19(2005), 3-18.
- O’Leary, Brian, *Pierre Favre and discernment*, Oxford, Way Books, 2006.
- Purcell, Mary, *The Quiet Companion*, Dublin: Gill and Macmillan, 1970.
- “Santa Messa nella ricorrenza del Santissimo Nome di Gesù.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0103_omelia-santissimo-nome-gesu.html (접속일: 2019. 8. 4).
- Spadaro, Antonio, “Intervista del Direttore a Papa Francesco”, *La Civiltà Cattolica*, 3918(2013), 449-477.
- “St. Peter Faber”, *Ingis*, 44(2014), 6-54.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일기』(Memoriale)에 나타난 영적 식별에 대한 이해:
성 이냐시오 로올라의 『영신수련』 식별 규칙을 중심으로

김영훈 S.J.

교황 프란치스코는 여러 차례 다양한 권고와 담화 등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 식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고는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영적 일기』에 나타난 영적 식별의 지혜를 연구하며 오늘날 교회에 요청되는 영적 식별의 이해를 파악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성 파브르의 영적 식별은 식별만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하느님 체험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성 파브르의 하느님 체험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다. 그의 하느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는 내적 태도의 표현은 신심과 갈망이다. 그는 갈망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신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다. 그러므로 성 파브르의 영적 식별은 기도와 활동에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다. 오늘날 불확실성 속에서 내적 회심과 구조적인 쇄신을 요청하는 교회는 성 파브르가 어떻게 당대의 갈등과 도전을 직면하며 식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였는지 귀중한 영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영적 식별, 신심, 갈망, 영신수련, 내적 체험

An Understanding of Spiritual Discernment in St. Peter Faber's *Memoriale*
as Rooted in Rules for the Discernment of Spirits
i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Kim, Young Hoon S.J.

Pope Francis urges that today's Church needs spiritual discernment. This paper studies the wisdom of spiritual discernment in St. Peter Faber's *Memoriale* in order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spiritual discernment for today's Church. St. Peter Faber's spiritual discernment can be understood in depth by examining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s a merciful God. Consequently, his inner attitude to God can be summarized in devotion and desire. By pondering desire, he finds the will of God; by cultivating devotion, he seeks God's presence. So his discernment is the way to God in prayer and action. Today's Church may learn from St. Peter Faber's valuable spiritual teachings how he found the will of God through discernment in times of conflict and challenge.

Key Words: Spiritual Discernment, Devotion, Desire, Spiritual Exercises, Inner Experience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1월 1일
논문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25일
